쿠바선교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들은 28 년만에 쿠바 영주권을 받아서 일정 기간마다 쿠바를 떠나지 않아도 되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쿠바는 생필품, 식재료, 연료 부족 등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됩니다. 생수 판매가 중단된지 8 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역사하십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복음 전도의 부흥이 쿠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과 함께 사역 보고를 드립니다.

첫째는 **쿠바 국내선교**에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고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전도 프로젝트(그림일대일 전도양육 훈련교재)로 쿠바 15 개주를 모두 정복하는 1 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초교파적 사역으로 1 천여교회가 동참하였고 결신자가 1 만명이 넘었으며 지금도 계속 전도하는 전도인들이 1,700 여명 넘습니다. 전도율이 72%이고 결신자의 96%가 제자반에 등록하였고 우리 전도팀이 사역하는 동안에 매 2 분마다 3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곧 이어 2 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쿠바 15개 주 그림일대일 전도의 열매

(2020년 5월-2022년8월)

참여 교회: **982**

준비된 전도인: **1,715**

방문 가정수: **7,885**

전도 받은이: **10,645**

결신자: **7,654**

제자반 등록자: **7,384**



-전도 받은이 중 결신자: 약 72%

-결신자 중 제자반 등록: 약 96.5%

-전도의 열매: 각 2분마다 3명이 회심

둘째는 **현지 지도자 훈련** 특별히 **차세대 리더십 훈련**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3 년 문을 연 쿠바선교사관학교(DAAM)을 통하여 2 천명이 넘는 주님의 일군들이 배출되었고 그분들의 자녀들(PK) 4 천여명이 부모님들의 뒤를 이어 선교사로 헌신되어 해외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 년부터 시작된 GMI 신학교는 1 년 합숙훈련으로 매년 80 명이 집중훈련 받고 있는데 4 기생 80 명이 2020 년 1 월에 출발했다가 팬데믹으로 멈추었으나 2022 년 2 월 7 일 다시 시작하여 65 명이 8 월 19 일 졸업하였습니다. 5 기는 2023 년 3 월 6 일 80 명으로 시작하는데 지원자가 300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3 도시에(Holguín 올긴) 남부지방 분교를 세워 60 명을 더 수용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5 세 미만의 차세대 86 명이 "뜨레스 디아스" 영성훈련(차기 신학교 입학생들 중심, 8 월 21-23 일)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람 낚는 어부들(Pescadores)로 배출되었습니다. 35 세 이상을 대상으로는 11 월 1-4 일까지 열릴 계획입니다.





셋째는 쿠바 국내선교의 벽을 넘어 이제는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 받을 쿠바교회의 해외선교**에 대한 기도제목입니다. 모든 쿠바교회는 해외선교 파송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외선교사 헌신자가 수천명에 이릅니다. 2023 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쿠바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재)쿠바 아프리카 의대생 2 만명 중에 올해에 약 500 여명을 전문인선교사로 준비시켜 파송하는 사역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2022 년에 3 회에 걸쳐 "선교사 학교" 2 박 3 일 캠프를 열었습니다.









1 차는 4/15-17, 150 명이 Visión 800 Global 과 Hechos 29 주관으로 열렸고, 2 차는 6/10-12, 181 명이 김종진 목사가 호스트가 되어 '5 Solas' 주제로 열렸는데 모두 Habana 엘까노교회에서 2 박 3 일 합숙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차는 8/9-11, 황성주 박사가 호스트가 되어 올해 의대 졸업한 65 명 아프리카 의사선교사(전문인선교사)들과 Varadero 리조트 호텔에서(대부분이 생전 처음 리조트 호텔 경험) 주님 앞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의 쿠바선교사역이 30 년차로 들어섰습니다. 두개의 표어와 함께 쿠바사역을 섬겨왔습니다. 국내선교완성을 위한 **쿠바를 그리스도께로! ¡Cuba para Cristo!**와 세계선교완성을 위한 **주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주자, 쿠바교회! ¡Último Corredor de la Gran Comisión del Señor, Iglesia Cubana!** 입니다.





2003 년 막 개척한 가정교회의 창문에 걸려있던 **"Bendecidos para Bendecir"** (We are blessed to Bless)라는 고백이 쿠바성도들의 신앙과 영성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한끼만 먹을 수 있고 몇시간을 걷거나 2-3 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일상에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과 축복들은 원래부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고백을...

존경하는 쿠바선교 동역자 여러분,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최근에 **"부흥 쿠바"(Avivamiento en CUBA)**라는 쿠바 초교파 선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Billion Soul Harvest 운동'**의 쿠바 지부를 론칭하면서 **'100 만 쿠바영혼을 주님께 드리자'**라는 꿈과 함께 60 여명의 리더들이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8 명의 이사진이 선발되어 주님이 주신 영혼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자고 다짐하며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37 세입니다.





쿠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 긴급 기도제목입니다.**

- **아바나선교한글학교 개교** (2023 년 1 월): 쿠바 전문인선교헌신자 대상 한글교육으로 1 년 과정을 수료한 후 북한 선교사로 파송함이 목적임.

2022 년 10 월 1 일,

아바나에서 전재덕, 이재순 선교사 드림. (amosjun7@gmail.com)